이젠 知性입니다"

뵌 큰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나하나 깨달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불어 남도 함께
깨우쳐야 세상 구제

수行教雙修'를 얘기하는데, 법인스님은 그들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학은 승가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불교이론이나 사상을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법한 길을 가기 위해 교학은 필수적입니다. 주변의 큰 스님들을 보세요. 단 하루도 경전을 읽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공부할 때는 선을 버리고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결심도 없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사선입교'란 선을 아예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였다. 아니, 오히려 선을 제대로 하려면 교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 뒤에 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과 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하셨다. 부처님 마음이 선이요, 부처님 설법이 교이니, 어찌 선과 교가 다르겠느냐며 이 둘을 구분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다.

지금 법인스님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30년 전 동경에 명월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 30만 명이 넘는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을 교화했다.

스님의 계율관이 궁금했다.

"계율 계율 하는데, 도대체 계율이 뭡니까. 경직된 사고로 계율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입니다. 부처님이 계율을 말씀하신 것은 화합에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본분을 잊지 않고 명예욕과 물욕 없이 사는 스님에게 계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가 계율이지요."

법인스님은 지나치게 계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에 더 비중을 두셨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다.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 대비무장애大悲無障碍'라고 써 보이셨다.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부처님 진리는 헤아리기 어려우며, 부처님의 대자비에는 장애가 없다'는 말이다. 스님께서는 이 말에 담긴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광대무변해서 대자비심으로 실천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안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법인스님.

대웅보전 앞까지 나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시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시는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청동대불 앞에 섰다. 산 아래를 굽어보며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 얼굴이 법인스님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하심 '철저'…불교계선 '신지식인'으로 통해

법인스님은?

교학과 포교를 빼놓고 법인스님을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자이자 포교사다. 그러나 스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힘이 바로 깊은 수행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다른 스님들과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신도들에게 매우 자상하다는 것이다. 신도들에게는 친구이자 도반이다. 오히려 신도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스님의 하심은 정평이 나있다.

훌륭한 상좌들을 많이 둔 것도 눈에 띈다. 불교화자로 명성이 높은 호진스님(전 동국대 교수)과 실천승가회 의장인 청화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스님 7~8명이 모두 법인스님 밑에서 공부했다.

상좌인 각원사 총무 대원스님은 스승을 이렇게 말한다. "불교계에서는 '신지식인'으로 통하시죠. 불교가 이 시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시죠."

법인스님은 1931년 경남 충무에서 출생해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윤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산 해인대학과 동국대 사학과,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동국대 철학과를 수료한 뒤 일본 대동문화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를 졸업했다. 1975년 각원사와 명월사를 창건했으며, 85년 평화통일문화협의회 평화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영수스님



덕숭산 수덕사에는 동진출가 스님들이 많다. 조선말과 일제의 암울한 역사속에서 등장한 경허라는 걸출한 선사스님은 조선 5백년의 불교핍박으로 쇠퇴해가던 우리 불교를 선수행과 깨달음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켰고, 경허스님의 전법제자 만공스님은 덕숭총림 선원인 정혜사에 머물며 지금의 선방수행의 틀을 확립하여 수덕사를 근대한국 선불교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경허, 만공 스님 두 분 선사께서도 어릴 때 출가해 계를 받은 동진출가승이고, 그 영향인지 만공스님을 직접 시봉했던 지금의 방장스님과 그 아래로 수좌스님 등 현재까지 수덕사에는 10대 동진출가의 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아들인 라훌라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동진출가는 역사속에서 수많은 선지식과 큰스님들을 탄생시키며 전승되어온 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수덕사의 많은 동진스님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스님이 지운스님이다. 지운스님은 법명보다 '영수스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익어져 법명을 부르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형편이다.



출가를 위하여 수덕사에 도착하여 입산의 허락을 받으려고 사무실에 갔을 때 영수스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인생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고 심각한 고민 끝에 출가를 단행한 입장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출가의 뜻을 밝히려는데 미쳐 말도 꺼내기 전에 "아~ 입산하려고, 그래, 행자실로 가도록 하지." 짧은 말로 수덕사 입산의 절차를 마쳐버렸다.

담백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영수스님은 흔히 '수덕사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20대 청년시절에는 절에 와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무례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지금도 인근 사람들에게는 '수덕사 지킴이'로 기억될 정도로 괄괄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이유는 계를 받은 이후 수덕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노스님들 시봉을 시작으로 지금의 수덕사 대 소사 모든 곳에 영수스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말사 주지 한번 나가지 않고 오로지 수덕사에만 살아온 스님은 수덕사의 스님들과 덕숭산 구석구석에 관계된 작은 일이라도 모르는 일이 없다. 영수스님은 어려서 노스님들 앞에서 무릎꿇고 배운 의식과 염불이 아주 빼어난 수준이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간혹 후배들의 예법이나 염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나치는 결에 잠시 한마디씩 일러줄 뿐 자리를 만들어 청하려 하면 결코 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살아오며 배운 방법이 그런 틀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자리를 갖추는 것 자체가 상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출가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고 모양내는 것을 경계하여 가끔 면박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말에 미움을 담는 일은 없다.

영수스님은 수덕사를 떠난 적이 없는 까닭에 강원이나 대학공부를 한 경험이 없지만, 당신의 후배나 상좌들에게는 시대에 따른 공부와 활동을 부족함 없이 지원한다.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떠난 상좌에게 꾸준히 학비를 보내고, 군에서 법사로 있는 시봉에게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면 그만큼 유혹과 번잡함이 많아 '중노릇'하기 어렵다는 노스님들의 가르침에 수덕사 산문 밖을 떠나보지 않은 자신의 삶에 회의나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요구 속에서의 '중노릇'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까닭에서 이다.

담백·직선적… '수덕사 터줏대감'
다비장 준비·진행 항시 도맡아

큰 절에는 대중이 많이 사는 까닭에 일년에 몇 차례씩 다비식이 있게 된다. 다비는 스님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중 하나다. 수덕사는 특히 '여승'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견성암 선원이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도량이라 비구니 스님의 다비식이 자주 있곤 한다. 그래서 늘 다비장을 깨끗이 가꾸고 다비에 필요한 화목을 준비해 놓는데, 다비장의 모든 준비와 진행은 언제부터인가 영수스님의 몫으로 굳어졌다. 절과 마을의 일꾼들이 다비식을 준비하고 돕지만 스님들의 가는 길은 스님들이 맡아서 준비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려 하지 않는 힘든 일을 직접 팔을 걷어붙여 나무를 쌓고 청솔가지를 덮어 스님들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수십년 세월동안 보고 익히며 쌓아온 경험은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다비식을 이끌어 가고, 절도 있고 숙련된 진행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각 본사마다 각각의 전통에 따른 다비식이 있지만 수덕사의 다비식이 그중 간결하고 깔끔하며 시간적으로도 가장 신속하다는 평을 듣는 이유는 덕숭산의 가풍이 담박한 이유도 있지만 영수스님이 늘 다비장을 지키는 까닭이다. 그래서 덕숭산 노스님들에게 영수스님은 다비를 맡아줄 든든한 배경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주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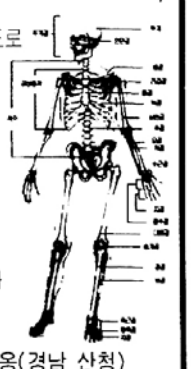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